

K리그 '연봉 삭감' 가이드라인 마련 중.. "일방적 감액 없어"

연맹·K리그 구단 추정 손실액 약 576억 원

다음달 구단-선수 만나는 간담회 마련 계획

프로축구 구단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로축구연맹이 선수단 연봉 감액과 관련해 "일방적인 삭감은 없다. 현재 논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은 5월에 막을 올렸다.

일정 축소가 불가피했다. K리그 1(1부리그)은 11경기가 줄어 2라운드도 치러지고, K리그2(2부리그) 역시 3라운드에서 9경기가 줄었다.

게다가 정부 지침에 따라 무관

중 경기를 가졌다. 다음달 1일부터 전체 관중석 규모의 10%를 상한선으로 유관중 전환하지만 누적된 손해가 상당하다.

연맹과 K리그 22개 구단이 추정 손실액은 약 576억 원이다.

선수단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연봉 감액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고, 지난 4월 프로축구선수협회에서는 공론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종권 연맹 홍보팀장은 28일

"(연맹이) 선수들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걸 추진하는 건 아니다. 연맹의 입장은 구단과 선수가 개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이다"며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수(743명·군팀 상주 제외) 중 36%(266명)가량이 기본급인 3600만 원을 받는다.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연맹은 구단과 선수가 마주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달 중순에 간담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그동안 구단과 선수가 터놓고 이야기할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던 만큼 간담회를 통해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선수들 역시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류다.

뉴스시스



하나원큐 K리그1 2020 공식 개막전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린 지난 5월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의 관중석이 텅 비어 있다.

이강인 소속 발렌시아, 새 사령탑에 가르시아 감독

2022년 6월30일까지



이강인 소속 발렌시아, 새 감독에 가르시아 선임 (사진 = 발렌시아 홈페이지 캡처)

이강인의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가 하비 가르시아(50) 감독을 새 사령탑에 앉혔다.

발렌시아는 28일(한국시간) 가르시아 감독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2022년 6월30일까지다.

가르시아 감독은 2007년 비야레알 유소년팀 감독을 시작으로 알메리아, 오사수나, 말라가(이상 스페인), 루빈 카잔(러시아), 왓포드(잉글랜드)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다. 201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왓포드 감독을 맡았지만 작년 9월 성적 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 감독이 바뀌었다.

지난해 9월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이 경질됐고, 이후 지휘봉을 잡은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도 지난달 지휘봉을 내려놨다.

발렌시아는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9~2020시즌 리그에서 9

위에 머물러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의 입지에 새 감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앞서 이강인은 팀 내 불안정한 입지로 이적을 요청했고, 구단은 재계약을 위해 설득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비롯해 유벤투스(이탈리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마르세유(프랑스) 등이 이강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가르시아 감독은 취임 인터뷰에서 "선수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려도 실력이 뛰어나면 퍼스트팀에 설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컵 신한드림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막 오른다

내달 1일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꿈나무 야구축제가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스포츠경제가 주최하고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하는 '2020 한국컵 신한드림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이하 한국컵)가 8월 1일 서울장충어린이야구장에서 문을 열고 약 한 달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서울장충어린이야구장과 코로나19 청정 지역 황성 어린이불교파크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세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스포츠경제와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손을 맞잡고 2017년부터 이어 온 본 대회는 올해 4회째를 맞아 '한국컵'으로 격상된다. 꿈나무 야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도약의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특별후원하고 한국기자협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



흥공단,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금융이 후원한다.

한국컵은 글로벌 도약 원년답게 46개 지역 114개 팀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개 리그,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파파스리그로 나눠 서울장충어린이야구장, 황성베이스볼파크에서 나눠 열전이 펼쳐진다.

프로야구 전설 마해영(50) 성남 불루팬더스 감독은 "유소년 선수들이 속속 성장하려면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신 최동원 선배가 1루 쪽 관중석에 앉아서 저의 경기를 보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앞으로 유소년 팀들이 자웅을 겨루는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근(51)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는 야구 유망주 발굴과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돼 의미가 남다르다. 유소년 야구 팀들 간 우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며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내 자신의 팀과 각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수원, 말레이시아에서 AFC 챔피언스리그 재개

코로나19로 중단...10월~11월 중립 경기 치르기로



19일 오후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수원 삼성과 빗셀 고베의 경기, 관중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말레이시아에서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잔여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AFC는 27일(한국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챔피언스리그의

재개 계획을 알렸다.

수원과 전북이 속한 G조, H조의 경우, 10~1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중립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AFC는 "챔피언스리그 G조, H조 경기를 10월17일부터 11월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

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축구협회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FC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챔피언스리그 재개를 계획했고,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권역별로 중립경기를 치를 방침을 세웠다.

수원은 G조에서 광저우(중국), 조호르(말레이시아), 비셀 고베(일본)와 경쟁하고, H조의 전북은 상하이 상강(중국), 요코하마(일본), 시드니(호주)를 상대한다. 수원은 2패로 4위, 전북은 1무1패로 2위에 자리했다.

FC서울, 울산 현대가 속한 E조와 F조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한 일정대로 열릴 경우, K리그 경기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K리그 파이널 라운드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선수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2주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전자랜드, '미니 랜선 팬미팅' 개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는 29일 오후 7시 30분 구단 유튜브 'ELTV'를 통해 미니 랜선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송에는 차바위 이대현, 김낙현, 전현우가 참여해 팬들과 소통한다.

선수들의 근황 토크로 시작하는 이날 랜선 팬미팅은 팬들에게 사전

에 받은 질문에 선수들이 대답하는 코너와 팬들이 보내준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임, 선수들이 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코너 등으로 꾸며진다.

전자랜드는 사전에 응모한 팬들과 실시간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LG에 팀 응원가 헌정



LG 트윈스는 명지전문대 공연 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학생들이

팀 응원가를 헌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응원가 전문 유명 유튜브 사이트 '코리아Chorus'를 운영중인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김지현 교수가 이번 응원가를 총괄 기획했으며 이형탁 겸임교수가 작사·작곡을 했다.

LG는 "명지전문대학 학생들이 팀 응원가를 헌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응원가 전문 유명 유튜브 사이트 '코리아Chorus'를 운영중인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김지현 교수가 이번 응원가를 총괄 기획했으며 이형탁 겸임교수가 작사·작곡을 했다. LG는 "명지전문대학 학생들이

이 헌정한 팀 응원가는 산뜻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기 쉬운 K-POP 원조곡 흐름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김지현 교수는 "경단 30주년을 맞이한 LG의 열혈 팬 학생들이 구단에 특별한 음악 선물을 주자고 제안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